

24 요한복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성경말씀: 요7:37-39

지난 4주에 걸쳐서 요6장 강해, 오병이어 기적,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운다.

그런데 대중은 육신의 빵만 원하지 영존하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다수가 그분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6:66).

소수의 남은 자들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68-69)

오늘 7장은 6장의 연속이다. 6장은 빵 이야기, 7장은 물 이야기,

핵심: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 하신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신다.

오늘 < > 왜 생수 이야기,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것의 의미

먼저 문맥을 설명하려 한다.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공적인 테러가 시작됨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함(1).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오심

오늘 이야기의 시작: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다가오고 있다(2). 여기서 힌트가 주어진다.

장막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세 차례 큰 명절을 지키고 남자들은 다 거기 참석해야만 했는데 장막절은 그중 하나였다(신16:16). 장막절은 티쉬리 월 15일(대략적으로 10월 15일)부터 8일간 지켰으며 특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히 구분해서 지켰다(레23:34-43; 느8:14-18). 이 명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레23:42-43).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집의 지붕이나 풀이나 거리에 나뭇가지 등으로 초막을 만든 데서 유래된 명절. 느헤미야는 그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올리브 산에서 올리브, 종려나무 등의 가지를 모은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때는 사실 수확물을 거두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때였다. 한편 천년 왕국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모든 민족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막절을 지킬 것이며 그리하지 않는 민족들은 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슥14:16-19).

장막절은 작물 수확 후 맞는 즐거움의 절기, 많은 사람이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천년왕국에서도 이방인들도 이 명절을 지킨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장막절의 핵심 행사를 알아야 한다.

랍비들의 증언: 매일 아침 군중들은 해돋이 성전에 온다.

(*) 두 가지 물품이 필요하다. 하나는 감귤, 하나는 나뭇가지

(*) 왼손에 감귤 같은 것을 가지고(ethlog). 이 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상징함

오른손에는 종려나무, 버드나무, 머틀나무 가지들 장식(lulab): 조상들이 광야 생활 할 때의 세 단계 매일 백성이 성전으로 오는데 거기에는 제사장이 금으로 된 물통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예루살렘 남동쪽의 실로암 연못으로 간다. 백성은 뒤따르면 시편을 낭송하면서, (*)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통에 물을 담는다. 백성은 사12:2-3를 암송한다. 그 뒤 제사장과 백성은 예루살렘 동쪽의 물문을 통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다. 이때 제사장들의 나팔소리, (*) 제사장은 동행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제단을 한 바퀴 돈 뒤 연단으로 올라가서 물을 붓는다. 매일 이 일을 한다.

(*)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

장막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과 동생들의 이야기(3-5), 그들의 불평하는 톤의 이유(5)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함, 그의 동생들도 그분을 믿지 않음,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라고 함

우리 주님의 말씀(6). 아직 좋은 때가 아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형제들을 속인 것이 아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는 공적으로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가 되자 올라가셨다(10).

예루살렘의 상황: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분을 찾고 있다(11).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죽이려고

사람들 사이의 여론(12-13), 좋은 사람, 속이는 자 등

다만 두려워서 공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였다(13).

14-36절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

드디어 명절의 마지막 날(37). 이 날도 제사장과 백성은 아침에 동일한 일을 하였다. 실로암 연못, 시편 낭송, 물 문 통과, 나팔 소리가 요란함, 이사야서 암송, 드디어 제사장이 연단에 올라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물 통을 높이 들고 물을 부음, 제사장이 물을 붓는 것을 보는 것은 장막질에 온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 중의 하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37).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이때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다. 바로 이때 주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셨다. 모든 것이 완벽히 구비된 시청각 설교였다.

이런 것을 이해해야 요7:37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안 뒤에도 요7:37을 감동 없이 읽는다면 큰 비극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위대한 말씀들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한다.

목마른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37) 여러분은 어떤가? 목마른가? 목마른 적이 있는가?

요즘 얼마나 더운가? 목이 마르다. 손자가 와서 저녁에 앞에 있는 공원에 데리고 나간다. 거기에 수도가 몇 개 있다. 가서 물을 틀어 줬더니 떠나려 하지 않을 않는다. 물이 튀니 조금만 틀어 주면 아니라고 한다. 완전히 다 틀라고 한다. 왜 더워서 목이 마르기에, 시원해지려고, 참 물은 좋은 것이다. 지금 주님은 중동 지방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다. 이른 아침부터 햇볕이 짹짹 내리쬐고 있다. 너무 덥다. 시원한 물이 생각난다. 이들은 지금 더운 상태에서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고 있다. 바로 이때 주님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론 우리 주님은 여기서도 육신의 갈증을 말하지 않는다. 물리적인 물을 말하지도 않는다,

우리 주님은 요6장 말씀 그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의 영적인 물을 말한다. 요4:14 영원히 솟아나는 우물을 말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갈망이 있으면 누구나 와서 무료로 마시라고 주님은 초청하신다. 사55:1-3, 계22:17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 갈망을 느낀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적이 있는가? 그 초청에 응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기독교의 핵심: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이곳이 끝이 아니다. 천국이 있다.

이 갈증이 없이 그냥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불로 인해 영원한 갈증을 느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말한다. 그런데 와서 마시라고 하니 돈, 명예, 권세 주세요.

갈증을 채우라고 하니 록 음악 등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예레미야 대언자의 부르짖음(렘2:13)

인간의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 어느 정도 맞는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수의 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37-38)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다.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다.

6장에서 오병이어, 하늘에서 내려온 빵, 지금은 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의 초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원히 솟구치는 물을 주리라.

그 물은 공짜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물을 주시는 분이 세운 조건: 믿음으로 와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가야 한다.

히11:6, 내 업적이나 행위가 아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7:38, 단순히 생수가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친다.

우리 안에 있던 영적 갈증, 영적인 배고픔이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우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넘쳐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된다.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30)

즉 성령님의 파위가 넘쳐흐를 것이다: 이것이 목마름을 해결한 성도들의 특징이다.

정부 차관, 너무 감사합니다. 정교분리가 아니라 국교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천주교 다니고 있는데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목사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도 육신을 입은 사람, 육신적으로 고통이 많다. 특히 요즘 국가,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것 생각하면 애가 타고 화가 난다.

성경 최종 교정하면서 너무 힘이 들다. 증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결국 끝날 것이다. 내 배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들이 솟아오를 것이다. 나와 함께 수고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을 통해 말씀 사역의 생수가 강들처럼 솟아올를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쁨은 생수가 넘쳐흘러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대야 비로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서 만족을 찾거나 우리만 만족하기를 원하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결론

우리 주님을 보라. 장막절의 마지막 날,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분의 입에서는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무엇을 뜻하는가?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
지금 국가 위해 염려하고 기도한다. 대한민국은 주님의 손안에 들어 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각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원하는 소원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제때에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는 것을 보여 주는 절기

광야 40년 동안 피약별에서 나뭇가지 몇 개로 초막을 만들고 쉬고 있다.

물이 마시고 싶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에 모세가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다(출17:3-7). 강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되었다. 이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고전10:4).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39).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39). 그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는데 아직 반석을 치지 않았다.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이다. 그러나 같보리 십자가에서 그 반석을 치면 드디어 거기에서 물이 솟아오를
것이다.

그 생수의 강물이 바로 성령님이다.

십자가 사건, 부활, 50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부어졌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성령 침례를 받는다. 꼭 잠긴다.

그 이후에도 순종하며 살아가면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다.

결론

영혼의 갈증을 느낀 적이 있는가? 주님께 나와 성령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났는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살고 있는가? 없으면 37을 기억하기 바란다. 질병, 고통, 주님께 나오라.